공항·선수촌 2중 검역…고열 등 증상땐 곧바로 격리



메르스 장기화…U대회 방역대책

매뉴얼·선수단 모니터링 강화 발열감지기·선별 진료소 운영 질병본부·안전처와 긴밀공조

광주시가 전 세계 젊은이의 대축제인 하계유니 버시아드대회 개최를 앞두고 중동발 메르스 공포 를 차단하기 위한 실전시스템 가동에 들어갔다.

14일 광주시와 U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조직위는 U대회 메르스·에볼라 등 전염병 발생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입국 선수단 모니터링 강화 등을 담은 대응 매뉴얼 마련 등 실전 시스템을 가동중이다.

조직위는 참가 선수단 명단을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해 공유하는 한편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각국 선수단은 검역소를 거쳐 증상이 발견되면 곧바로 인 천의료원으로 이송돼 격리치료를 받도록 했다.

증상이 없는 선수 명단은 검역소에서 대회가 열리는 각 시·도로 통보된다. 증상이 없어 선수촌에 입촌하더라도 경기 관련 의무실, 숙소에 배치된 직원 등이 하루 두차례 모니터링으로 대회 중 발병 우려에 대비한다.

이 과정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의무실과 숙소직원 등은 곧바로 보건소에 보고하고, 보건소는 광주시·질병관리본 부·조직위에 통보하는 절차를 밟는다.

발열 정도에 따라 조치 내용도 달라진다. 37.5도 미만 발열 사례는 의료기관 방문을 안내하고 37. 5~38도인 경우는 1시간 후 체온을 측정해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37.5~38도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동반하거나 38도 이상 고열 증상을 보인 선수는 곧바로 국가 지정 입원 치료병원으로 이송돼 격리



U대회 성화 카누 봉송 Č천도시공사, 춘천시생활체육회 관계자들로 구성된 광주U대회 카누성화 봉송팀이 지난 12일 춘천 김유정 문인비부터 물레길 선착장 코스까지 1km를 5대의 카누에 타고 봉송을 했다. 광주U대회 성화는 15일 춘천시청을 출발해 속초, 강릉으로 봉송할 예정이다.

치료를 받는다.

U대회 감염병 예방과 역학조사 관리는 광주시 비상방역 대책본부, 조직위 의무반 도핑부, 질병 관리본부 생물테러 대응과를 축으로 하는 비상방 역 상황실을 중심으로 한다. 또 광주 5개 보건소, 경기장 의무실, 의료기관, 보건환경연구원, 숙박 시설 등이 실시간 감시·신고로 상황실 기능을 극 대화하는 체계로 구성된다.

광주시는 대응 매뉴얼과는 별도로 메르스 예방 조치로 선수촌 발열감지기 조기 설치와 특별기동 방역대·선별 진료소 마련, 감염관리 전문가 배치 등에 나선다. 발열감지기는 선수촌에 6개, 국제심 판들이 머무는 곳에 5개가 설치돼 출입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한다.

선수촌 내에는 3개 병원 의료진이 배치되고, 자

체 의료시설도 운영된다.

국민안전처도 안전점검단을 구성해 광주 U대 회의 안전 대책과 경기장 시설 안전 상태를 집중 점검하고 미비점 보완에 나선다.

안전처는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대회조직위원 회와 광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 행하는 안전점검의 실적과 결과를 검증 중이며, 안전점검단에는 관계부처와 스포츠안전재단, 전 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관계자와 2014 인천 아 시안게임, 2015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관계자들 이 배치됐다.

최복수 국민안전처 생활안전정책관은 "참가선 수단이 경기에만 집중하고 광주시민은 안심하고 관람할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모든 협조를 아끼 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 '수소차 허브도시'가 이끈다

현대차·창조경제센터 함께 추진 市, 수소차 산업 육성 전략 마련

광주시가 자동차 산업 밸리(자동차 100만대 생산 도시) 조성의 첨병으로 '수소차 허브도시'를 조성하 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시는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현대차 그룹과 함께 친환경 자동차인 수소차 산업을 육성 해 미래형 자동차 산업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수소자동차 허브도시 추진위원회를 열고 수소차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육성 전략을 마련했다. 주요 전략은 수소 융합스테 이션, 수소버스 실증단지 조성 등 세계 수소차 산업 을 선점하는 여건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강소기업 육성, 수소차 양산 도시 준비, 인력양성, MICE(마이스) 산업 연계 등 명실상부한 '수소차 허브도시 광주'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광주시는 특히 이번 전략의 핵심인 수소연료전지 차(FCEV)와 전기차(EV) 융합충전스테이션 플랫 폼 실증사업으로 가스, 전기, 열 등 다양한 에너지 를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어 친환경자 동차산업과 에너지산업 육성에 큰 도움을 줄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기내아고 썼다. 이 융합스테이션은 에너지 생산·판매·저장·분 산·발전까지 할 수 있는 복합에너지 충전소로 수소 차와 전기차 충전뿐만 아니라 전기 생산까지 가능 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꼭하다

광주시는 이를 활용해 수소연료전지 전·후방 연관 산업을 조성하고 융합스테이션 플랫폼 시스템, 수소 발생과 이용, 통신 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마케팅, 인력양성,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전방위적인기업지원까지 연결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민선 6기 핵심 공약으로 자동차산업밸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제조업 르네상스 선도를 꿈꾸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업인 자동차 국가 전용산단 조성, 기업 공동 활용 인프라 조성, 친환경 자동차 기술개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이 현 실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중이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연간 62만대 자동차 생산 기반 위에 우수 인력, 정부의 의지 등이 맞물리면 '수소차 허브도시 광주의 조성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면서 "특히 에너지 문제, 환경규제 등 기존 산업의한계를 극복하고 미래형 친환경차 산업, 특히 수소차 산업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시의 수소차 허브도시 조성은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사업 중의 핵심"이라고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토종업체 시공 U대회 육상경기장 트랙 '클래스-1' 인증 (국제공인 최고등급)

친환경·고품질 탄성포장재로 시공 함평 '플러버' 세계시장 개척 도움

전남지역 토종업체가 시공한 광주 U대회 육상 경기장 트랙이 세계 최고 등급의 인증을 획득해 하세다

광주시는 14일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주 경기장인 육상경기장(광주월드컵경기장)이 국제 육상경기연맹(IAAF)으로부터 국제공인 1등급인 '클래스(Class)-1'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클 래스-1은 국제육상경기대회나 올림픽 육상종목 등 모든 육상경기가 가능한 최고 등급을 말한다. 주경기장 트랙은 광주U대회를 앞두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기존 우레탄 포장재를 철거하 고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트형 탄성포장재 로 시공됐다.

이번 국제육상경기연맹 클래스-1 인증은 트랙과 필드에 대한 측정과 인증기관의 현장 테스트등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쳤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광주시는 아스콘 타설 단계부터 철저한 품질관리와 양생 기간 준수 등으로 시공의 품질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최고 등급은 받은 육상트랙은 전남에 본사와 공장을 둔 '플러버'라는지역 토종업체가 시공했으며, 향후 세계 시장 개척에도 큰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 삼도동과 인접한 함평 월야에 소재한 플 러버는 재활용 고무분말 대신 천연고무와 합성고 무를 섞은 최상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CLASS 1급 경기장의 시공실적이 없는 탓에 그동 안 해외수주에 애로를 겪어 왔다. 이 업체는 CLASS 1급 경기장인 이번 광주 U대회 트랙 수주 로 이탈리아 업체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세계 트랙시장에 한국 대표 주자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주욱 광주시 경기시설과장은 "육상경기장의 국제공인 클래스-1 인증은 전남지역업체의 탄성 시트포장재 시공의 경쟁력을 확인한 사례로 대회 성공개최의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 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